

여수 시민의 힘, 섬박람회를 움직인다

공연·전시·재능기부·자원봉사 등 다방면 참여 ‘섬 가치’ 알리미 역할…“성공 개최에 힘 보탬 것”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수 시민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부터 소상공인의 나눔, 청년과 학생들의 참여, 880명 자원봉사자의 현장 활동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박람회장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5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기업 참여 프로그램인 ‘보임DAY’에 이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여수시민들이 공연과 전시, 재능기부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역사회의 응원 열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 ‘캠페인 포 여수(CAMPAIGN FOR YEOSU)’가 눈길을 끌었다.

추석 연휴 기간 박람회장에서는 10여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들

에게 무료로 선보였다.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박람회의 주인공으로 참여했다.

비보이 세계 챔피언 출신 윤일로씨를 비롯해 밴드 들국화 음악감독을 지낸 박환씨, 트럼페터 이학경씨, 전 여수시립국악단 지휘자 손운씨 등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여수우도풍물단과 삼동매구 등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도 힘을 보탬다.

이번 문화예술 프로그램에는 모두 200여명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박람회장에 활기를 더했다.

또 여수를 대표하는 작가 강종열 화백은 여수 10경을 담은 자신의 작품 가운데 한 장만 에디션 12점을 기증했다. 추석 연휴 기간 박람회장 마켓섬과 열린무대 앞에 마련된 추천함에 명함을 넣어 응모하면 매일



시민들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여 의지는 최근 열린 결의대회에서도 이어졌다. 섬박람회장 주행사장에서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리며 박람회 성공을 함께 응원했다.

3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나눴다.

돌산읍 무술소리 카페는 추석 연휴 기간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 선착순 100명에게

음료권을 제공하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등 지역 상인들도 박람회 성공 개최에 동참했다.

시민들의 참여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기획사 대표, 카페 운영자, 막걸리 공장 대표, 청년과 학생,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는게 조직위

의 설명이다.

섬박람회 기간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모두 880명. 하루 평균 230명 가량의 자원봉사자가 박람회장에서 관람객 안내와 행사 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 각 전시관에 배치된 해설사들은 전시 내용과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박람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 의지는 지난 29일 열린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대회’에서도 확인됐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민들이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문화예술 공연과 재능기부, 자원봉사, 소상공인 참여 등 시민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박람회장 콘텐츠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섬의 가치를 알리는 섬박람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역 출산가정 ‘버팀목’

6개월간 산모 232명 이용…신생아 돌봄 등 만족도 높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지난 3월 개원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지역의 핵심 출산 지원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총 232명으로, 이 가운데 광양시민은 202명(87%), 타 시·군 거주자는 30명(13%)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원 초기부터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예약과 입실 안내 등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신규 종사자 직

무교육과 직원 친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개원 6개월을 맞아 지난 8월 이용 산모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서비스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신생아실의 경우 직원 친절도는 94%, 업무처리 정확도 및 신속성은 91%, 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91%, 직원 전문성은 85%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다.

특히 마사지실은 환경 및 정결, 고객 응

대 태도와 친절, 마사지·두피 관리 등 모든 조사 항목에서 응답자의 100%가 ‘만족 이상’으로 평가했다. 식사 및 배식도 94%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는 등 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서비스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6실을 비롯해 영유아실, 상담실, 프로그램 교육실, 산모휴게실, 육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일반 산모실은 37.6㎡(11.4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각 실에는 모션베드와 안마의자가 설치돼 있다.

시설 곳곳에는 건식 반신욕기와 워터마사지베드, 다리마사지기 등 산후 회복을 돕는 기기가 마련돼 있다. 입소 산모를 대

상으로 요일별 산후요가, 쪽쪽이 클립·모빌 만들기, 모유 수유 교육, 신생아 특·목욕 교육, 감성미술, 편지쓰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도 지원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14일 이용료는 160만원으로, 대상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개원 이후 산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운영에 반영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머물며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체감하는 광양시의 대표 출산 지원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사순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수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지역 발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특별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청

사순문 장흥군수, 지역 사업 반영 동분서주

민형배 특별시장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등 건의

사순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수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지역 발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특별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사순문 군수는 최근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해양·농생명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 특례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장흥 특용-유치 간 지방도 817호선 4차로 확보사업 조기 추진 등 산업·복지·교통 분야의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군은 이번 현안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경우 해양·농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따른 군 재정부담 완화, 광주권과 장흥을 연결하는 교통여건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통합특별시 출범의 효과가 장흥을 비롯한 중남권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정책 반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현안은 장흥의 미래 경쟁력과 군민 생활에 직결된 사안이다”며 “특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곡성, 지역농정 발전협의회 개최

내년 농업 발전 위한 협력사업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업 발전 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2026년 지역농정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해 농정과장 등 군 관계자와 농협 곡성군지부장, 곡성·석곡·옥곡·임면농협 및 축협 조합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내년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제안 사항과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농·축협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농업인 수혜도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도 협력사업은 6개 농·축협에서 총 60건, 약 117억원 규모로 제안됐으며, 이 가운데 약 94억원 규모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개선폰과 가공·저장시설 확충, 축산 경쟁력 강화, 농업인 경영비 절감 등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행정과 농업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농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시급성,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현 기자 hnnews1@gwangnam.co.kr

제18회 보성전어축제, 오감 만족 추억 선사

4000여명 방문…먹거리·직거래 장터 다채

‘제18회 보성전어축제’가 4000여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최근 회천면 읍포출발해변에 마련된 체험장에서 전어를 직접 잡았다.

전어를 잡은 뒤에는 솥물에 직접 구워 먹는 체험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갓 잡은 전어의 고소한 맛을 현장에서 즐겼다. 전어잡기와 굽기를 하나로 연결한 체험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무대 프로그램도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관광객 어울림 한마당과 보성전어축제 노래자랑에서는 참가자들의 공연과 경연이 펼쳐졌다. 귀성객과 관광

객, 주민들은 무대를 함께 즐겼다. 보성 특산물인 전어회무침, 회전쪽파전, 새우튀김 등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차 무료 시음 행사,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 어우러지며 연휴 기간 지역 상권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었다.

오영일 보성전어축제공동추진위원장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관람객들이 풍성한 한가위의 정을 나누고 고소한 보성 전어의 참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한층 다채롭게 준비했다”며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전어축제가 보성의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한 만큼, 더욱 풍성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th66@



참여자들이 최근 보성전어축제에서 전어잡기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청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상품권 사전 할인 판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원도심 일원에 서 열리는 ‘2026년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앞두고 축제 전용 상품권 사전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

상품권은 축제 개막 전날인 15일까지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

특히 축제장뿐만 아니라 인근 원도심 일대 230여개 가맹업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축제 전후로 여유롭게 원도심 맛집과 상가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전용 상품권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축제장 내 모든 음식 부스와 체험 부스에서 전면 사용된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업소 입구에는 ‘상품권 가맹업소’ 표찰이 부착돼 있어 방문객들이 쉽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매년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상품권을 이용해 원도심 상권 살리기 함께해 주신 시민과 방문객분들께 감사하다”며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사전 구매 기간에 미리 준비해 축제도 즐기고 원도심 상권을 살리는 착한 소비에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